

‘코로나19’ 독감처럼 반복 감염 될수도

완치 후 다시 감염 ‘재감염’…면역 유지안돼 반복 가능성 축가
죽은 바이러스 검출·바이러스양 미달 ‘재양성’…국내 705명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재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완치 후 재감염된 것이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향후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물론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독감처럼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재감염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시

감염되는 것으로, ‘재양성’과는 다르다. 그동안 국내에서 완치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재양성이었다. 재양성은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검출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 바이러스양이 충분히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후 새로 감염된 재감염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20일 기준으로 국내 재양성(재검출) 사

례는 총 705명이다. 한 달에 적게는 30명부터 많게는 90명까지 보고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재감염은 완치된 이후 다시 감염되는 것으로, 마치 독감처럼 반복 감염이 가능함을 뜻한다. 코로나19 재감염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단 5건만이 보고됐을 정도로 드물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감염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국내 감염은 대부분 GH 그룹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재감염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그런 변이들이 재감염이나 면역·항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시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재감염 의심자인 서울 거주 20대 여성은 지난 3월 확진 후 회복했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1차 때는 ‘V형’, 2차 때는 ‘GH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총력
전남도, 현장 밀착형 자문회의

전남도가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에 전남 어촌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부터 이틀간 공모 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자문회의를 도내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공모대상 지 72개소 주민(공모 발표자)과 15개 시·군 관계공무원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권역별 1개 분과당 30명 이내로 구성해 총 8분과로 나눠 진행했으며,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과 질의응답 등 대차요령에 대해 실전 사례 중심의 강연이 이뤄졌다. 또 실제평가와 동일한 방식의 모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에 부담감을 가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이같은 일대일 방식의 현장 밀착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서면·발표평가를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현장평가는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공모사업 최종선정은 오는 12월 중 60개소 내외로 결정되며, 현재 전남도 72개소를 비롯 전국 236개소가 신청해 3.9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다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 콘텐츠 발굴과 함께 지역협의체 구성,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추진된 공모에서 2년 연속 최다(전국 190개소 중 63개소, 33%) 선정된 바 있으며, 국비 4250억원을 포함 총 607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1일 신안군 가거도를 방문해 전남도 관계자에게 태풍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장관, 가거도 태풍 피해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여름 태풍 ‘바비’와 ‘마이삭’으로 피해가 발생한 신안 가거도를 21일 방문,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가거도는 지난 8월 태풍 바비로 480m 방파제 위 사석 약 250m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9월 태풍 ‘마이삭’ 때는 방파제 1000㎡가 유실됐다. 국토 최서남단

에 위치한 가거도는 지난 1979년부터 방파제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형급 이상 태풍이 휩쓸고 지나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조운찬 가거도 어촌계장은 문 장관에게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태풍 피해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복구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장관은 “수십년 간 태풍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빠른 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북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과 안전한 수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무등산 가을철 정상 개방 행사 취소

코로나19 여파로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와 ‘2020 빛고를 드론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광주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에 따른 지역 사회 감염 우려 등으로 가을철 정상 개방행사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례 군부대를 개방해 45만명이 정상을 탐방했다.

시는 또 다음 달 17~18일 제31보병사단

온빛누리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빛고를 드론 페스티벌’도 취소했다.

시는 다만 10월 감대중견벤션센터에서 개최하려던 국제 미술 전람회인 ‘아트광주20’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쇼(Online Show)’에서 주제전, 인터뷰 형식의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집합금지 해제…유흥업소 등 영업재개 방문판매·다단계·종교시설, 음식제공·소모임 금지

광주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방역당국은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미준수 시엔 영업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대상 중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과 활동이 집합제한으로 풀리면서 해당 업소들은 닫았던 문을 다시 열었다. 광주 집합제한 시설은 26종, 4만5천여곳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은 공통으로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와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 이용자는 2m,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1일 1회 이상 직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퇴근하도록 한 뒤 대장에 작성해야 하고 문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시설은 하루 최소 2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별 핵심 수칙도 규정했다. 상무지구 일대에 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주점들

비슷한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전 1~5시 영입이 금지된다.

노래 시설을 갖춘 곳은 손님 퇴실 시 마스크를 소독하고 커버를 교체해야 한다. 또 확진자 31명이 발생한 실내 집단운동 시설에는 10인 이상 집합, 방문판매 시설(32명)과 홍보관에서는 4㎡당 1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다.

불법 방문판매, 후원 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는 할 수 없다. 종교시설(129명)에도 4㎡당 1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소모임, 음식 제공과 섭취도 금지됐다. 목욕탕·사우나(10명)에서는 오전 1~5시 영업할 수 없다. 4㎡당 1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적용되는 기원(7명)에서는 바둑판 등 공용 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하며 실내 흡연 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뷔페(5명)는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쓰도록 했다. 학원(14명)에서는 시설 소독과 수업 전후 환기가 강조됐다. 특히 분무 소독보다는 학생들 접촉이 잦은 시설물을 닦아 줄 것을 권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전남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도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비롯해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다.

이번 조치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

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방역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단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실내운동(GX류)은 집합금지를 권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日 스가, 문 대통령에 답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최금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지난 19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양국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이 서한 교환을 통해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중요한 이웃’(스가 총리)이라고 상호 평가하고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통으로 언급한 만큼 조만간 정상 통화 등을 통해 대화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직접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땅 매 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정,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필지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무소(전재)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순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순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순 천 시 장

1.사업개요

가. 사업 명 :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555,142㎡ 라. 사업시행자 :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마. 승인기관 : 전라남도

2.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0년 9월 22일 ~ 10월 26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일간)

나. 공람장소 : 순천시청 도시과,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주민의견개회

가. 일 시 : 2020년 10월 7일(수) 11:00 ~ 나. 장 소 :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4.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작성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정보지 원시스템(https://e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기타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및 공고문은 순천시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및 환경영향평가서 정보지 원시스템(https://e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과(061-745-6322,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061-745-7121))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묘로 본보 도 간주하여 관제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을 할 것을 공고함.

1.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교리630MH

2.분묘의 개수 : 미상 1~3기

3.개장방법 : 공고기장 경과후 관제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4.유언분묘 : 공고기장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5.개장시류 : 토지정리 정리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인자주소 : 남도광역사무소

8.해남군 향산면 오교길 241-250

9.연차기간 : 10년

10.신고자 : 해남군 문내면 무교리266-1번지 무교길11-12

11.전화 : 010-9983-1793, 010-5039-1836

12.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인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등본, 토지신고기장 등

13.기타사항 : 상기 자리에 사람이 불합법하여 누락되어 추 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9월 22일
공고인 주문길